

광주·전남 통합 대비 광역 교통체계 해법 찾는다

오늘 DJ센터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

전국 교통전문가 모빌리티 혁신 모색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비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지방시대 교통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교통학회 제9회 학술 발표회'가 12-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대한교통학회 신임 회장단이 지난해 6월23일 광주시를 방문해 강기정 시

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학술발표회의 광주 개최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학회 내부 검토를 거쳐 광주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발표회가 제1회 통합특별 시 출범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과 대한민국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등 지역 교통 현안,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국내외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특별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비롯해 자율주행 관

련 회사의 기술과 정책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교통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 약 1천-1천500여명이 2박3일간 광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숙박·식음·관광·교통 등 지역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학술발표회는 '국토균형 지방시대를 이끄는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총 143편의 학술 성과가 발표되고 총 46개의 특별 세션이 기획·기관·연구과제·위원회·지회 등 5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대한민국 제1회 광역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전

남광주특별시를 위해 '지역 대통합에 따른 교통 정책 이슈'와 '국토균형 지방시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교통정책과 이슈'라는 특별기획 세션이 마련돼 행정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을 비롯해 미래항공모빌리티(UAM)·자율주행·AI 교통 등 모빌리티 분야 전문위원회 세션, 지역 교통 현안을 공유하는 지회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전역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도심에 달리는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7월에는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 시가 출범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며 "AI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교통 연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교통학회는 도로·철도·항공·해운·물류·유통 등 교통 전반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1982년 창립됐다. 현재 4천955명의 개인 회원과 151개 단체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교통 분야 학술단체다. /변은진 기자

5·18기록관, '모두의 오월' 참여학교 20일까지 모집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모두의 오월' 참여 학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모두의 오월'은 오월정신과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는 5-6월 운영한다.

교육은 오월여성역사해설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미래 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체험활동 등을 통해 불의에 맞선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오월정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희망 학교는 오는 2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5·18연구실(062-613-829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월정신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서구 스마트경로당 '활기' 김희강 서구청장이 11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통해 라인댄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LA 트래블쇼'서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도, 관광 상담·농수산식품 시식 인기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11일 "미국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LA 트래블쇼'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 농수산식품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LA 트래블쇼는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 소비자 여행박람회다. 유료 입장이라 실제 여행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며 올해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전남도는 박람회 현장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섬이' 키링과 볼펜 등 기념품을 증정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 22개 시·군 주요 관광지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관람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여행 상담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산 고품질로 만든 'K-전남 김'을 전시·홍보하고 조미김, 약과, 배 쥬리 시식 행사도 운영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현지 관람객에게 알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LA 트래블쇼는 북미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홍보 무대"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지정기부로 전남 국립의대병원 설립 자금 모금

도, 2035년까지 10년간 500억 목표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서 참여 가능

전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모금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의과대학 부제로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의료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중증·필수요를 책임질 대학병원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500억원(매년 50억원)을 모금하는 프로젝트다. 모금 재원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지원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전남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정기부 시작을 기념해 감사 이벤트도 준비했다.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지정기부 후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능협안심한돈 삼겹살(800g)'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4월3일 개별 통보된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의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미래 의료자립의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

